



김주찬

‘타선 살리기’ 형님들이 나선다



KIA, 지난주 5패 중 4패 1점차... 공격력 강화 처방
이명기·김주찬·터커·최형우 등 베테랑 전진 배치
선취 득점으로 승률 높이기 전략... 이민우 선발 시험대

‘2·4·5’가 KIA 타이거즈 반전을 위한 숫자다. KIA는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이명기(중견수)-김주찬(1루수)-터커(우익수)-최형우(좌익수)-안치홍(2루수)-나지완(지명타자)-김선빈(유격수)-한승택(포수)-박찬호(3루수)로 라인업을 꾸렸다.

아쉬운 득점력을 만회하기 위한 ‘베테랑 라인업’이라는 게 박희식 감독 대행의 설명이었다. KIA는 ‘강적’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를 상대했던 지난주 1승 5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중 4패가 1점 차 패배였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들의 연속이었던 만큼 부족한 타선 집중력을 채우기 위해 박 감독대행은 ‘경험’을 선택했다. 동시에 베테랑이 출격할 라인업에서 특히 눈길 가는 자리는 김주찬이다. 박 감독대행은 “경험 있는 선수다. 잔루가 많고

공격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2번 김주찬을 말했다. 김주찬에게 기대하는 것은 강한 2번이다. KIA는 올 시즌 선취득점 시 20승 4패의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선취득점에 집중해 승률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김주찬은 올 시즌 2번 자리에서 14타수 5안타로 0.286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성적이 좋은 자리는 토타자로 29타수 10안타, 타율 0.345다. 1번으로 가장 많은 자리에 섰던 이명기가 전면에 서게 되면서 김주찬은 강한 2번 역할을 맡게 됐다. ‘선취 득점’이 승리의 키워드가 된 만큼 2번 김주찬 카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관심사가 됐다. 그리고 이날 박 감독대행은 선발진의 변화도 이

야기했다. 박 감독대행은 “오늘 등판 결과에 상관없이 차명진이 2군에 내려갈 것이다. 재정비 차원이다.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니까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5선발 역할을 해온 차명진의 휴식을 예고했다. 대신 오는 16일 롯데 사직전에는 이민우가 선발로 들어갈 예정이다. ‘에이스’ 양현종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서 KIA의 선발진에는 많은 힘이 실렸다. 하지만 홍건희, 차명진으로 꾸려온 4·5선발진에서 기록된 성적은 4승 9패다. 4·5선발이 13경기에서 소화해준 이닝은 66.1이닝. 조금 더 많은 이닝과 승률이 필요한 만큼 마운드에서는 확실한 ‘4·5번’ 찾기가 과제다. 올 시즌 선발로 기대를 했던 임기영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재활이 길어졌던 한승혁이 11일 2군에 합류했고, 선발을 경험했던 양승철도 1군에 콜업되는 등 선발 테스트는 계속될 전망이다. 베테랑과 새 카드도 ‘2·4·5번’ 찾기에 나선 KIA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명기

덕아웃 T 특특

▲투수 출신이잖아요 = 삼성과의 흥기가 열린 11일 최원준이 ‘배팅볼 투수’로 나섰다. 타격 마지막 조훈현 시간, 먼저 훈련을 끝낸 최원준이 마운드에 올랐다. 최원준은 이창진과 함께 친구 신범수, 류승현에게 공을 던져주며 훈련을 도왔다. 훈련이 끝난 뒤 신범수와 류승현은 “공이 좋다. 치기 좋았다”며 친구의 배팅볼에 찬사를 보냈다. 최원준은 “친구들이 치고 있어서 던져봤다”며 “(내)공이 좋다. 투수 출신이다”라면서 웃었다. ▲그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 나지완은 지난

배팅볼 도우미 최원준 “투수 출신이잖아요”

주 두산과의 경기에서 안타 두 개를 도둑(?) 맞았었다. 두산 유격수 김재호가 두 차례 호수비를 펼쳐 나지완의 안타성 타구를 땅볼과 플라이로 둔갑시킨 것이다. 초반 길었던 부진 때문에 안타 하나하나에 애가 타는 나지완에게는 아쉬웠던 장면. 나지완은 “(김)재호가 그냥 글러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나도 두 개 다 안타인 줄 알았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저는 원래 가운데로 던져서 = 올 시즌 KBO리그는 공인구의 반발계수를 낮추며 지독한 ‘타고투

제’ 잡기에 나섰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공인구 효과’가 눈에 보이고 있다. 확실히 예전보다 공이 덜 나가면서 투수들은 공격적으로 승부에 나서고 있다. KIA 마무리 문경찬도 “공이 예전보다 덜 나가는 것 같다. 투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과감하게 스트라이크존 가운데로 던질 수 있는 것 같다”면서도 “나는 원래부터 공인구 변화와 상관없이 가운데로 던져서 공인구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불펜 난조에 날아간 10승

에인절스전 6이닝 1실점 호투... 플로러 7회 동점포 허용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빅리그에서 손꼽히는 우타 거포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다저스 불펜은 트라웃을 막지 못했다. 류현진은 불펜 난조로 시즌 10승과 빅리그 통산 50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에인절스와와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홈런 1개를 포함해 안타 7개를 내줬지만, 상대 득점권에서 더 강해지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했다.

5회 말 2사 1, 3루에서 트라웃을 삼진 처리하는 등 삼진 6개를 잡았고, 사사구는 1개(몸에 맞는 공)만 허용했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35에서 1.36으로 아주 조금 올랐다. 마이크 소로카(애틀랜타 브레이브스·1.38)에게 앞선 이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1위다. 류현진은 3-1로 앞선 7회 마운드를 넘겼다. 하지만 다저스 불펜 딜런 플로러가 7회 말 2사 1루에서 트라웃에게 중월 동점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류현진은 호투하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1회를 무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은 3-0으로 앞선 2회 말 1사 후 콜 칼훈에게 홈런을 맞았다. /연합뉴스

“패배는 탈락”... 여자 축구 벼랑끝 승부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의 이민아(맨 왼쪽)가 최근 프랑스 주느빌리에 스타드 루이 부리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홍보대사’ 기성용, 응원 방문

16일 부천 FC와 홈경기 관전



프로축구 광주FC 홍보대사인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이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는다. 광주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하나원큐 K리그2 2019 15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에 축구스타 기성용이 관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성용은 광주 구단의 홍보대사이자 개인 최대

주주(4000주)로 프리미어리그 휴식기를 맞아 고향 방문을 결정했다. 2015년 처음 광주 경기장을 찾았던 기성용의 4번째 경기 관전이다. 기성용은 광주의 ‘승리 아이콘’으로 꼽힌다. 광주는 기성용이 찾은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2015년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0으로 이겼고, 2017년 FC서울에는 3-2 승리를 쟁겼다. 그리고 지난해 기성용이 관람했던 서울이랜드전에서도 3-0으로 이기며 승점 3점을 쟁겼다. 기성용은 이번에도 푸짐한 선물을 안고 고향을 찾는다. 기성용은 광주 방문 때마다 구단과 모교(금호고), 지역 취약계층 등을 후원하고 체육발전 기금을 전달했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념티셔츠와 축구공 등 다양한 기념품을 하프타임 경품으로 제공한다. 후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기성용의 부친이기도 한 기영욱 광주 단장은 “광주시민과 축구 관계자 등 모두가 광주의 승격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늘밤 10시 나이지리아와 조별 2차전... 공격수 오소알라 경계령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여자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여자 대표팀이 나이지리아와 벼랑 끝 승부를 벌인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밤 10시 프랑스 그르노블의 스타드 데잘프에서 나이지리아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A조 2차전을 치른다. 프랑스에게 대패한 한국에게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16강으로 가는 첫 관문을 넘기 위해 나이지리아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한국은 골득실 -4로 나이지리아(-3)에 골득실 1

점이 뒤져 A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에 패하면 사실상 탈락이다. 주어진 90분 안에 골을 넣고, 이겨야 한다. 개막전 혼자 고군분투했던 ‘지메시’ 지소연(28·첼시)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에이스 이민아(27·고베아이나)의 활약이 절실하다. 프랑스전 후반 교체 투입된 이민이는 활발히 움직이며 후반 31분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FIFA 랭킹만 따지면 나이지리아는 38위로 14위인 한국보다 한수 아래다. 하지만 무조건 이겨야 하

는 승부인 데다 상대도 만만치는 않다. 나이지리아에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다. 바로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소속의 공격수 아시사트 오소알라(25)다. 아시사트 오소알라는 지난 2014년 20세 이하(U-20) 월드컵 때 7골을 터뜨리며 골든볼(최우수선수상)과 골든부츠(득점왕)를 차지하고 나이지리아를 준우승으로 이끈 골잡이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나이지리아 공격진의 스피드와 돌파는 주의대상이자. 한편, 24개국이 출전한 이번 월드컵 대회는 각 조 1, 2위 12개 팀과 와일드카드 조 3위 중 성적 상위 4개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